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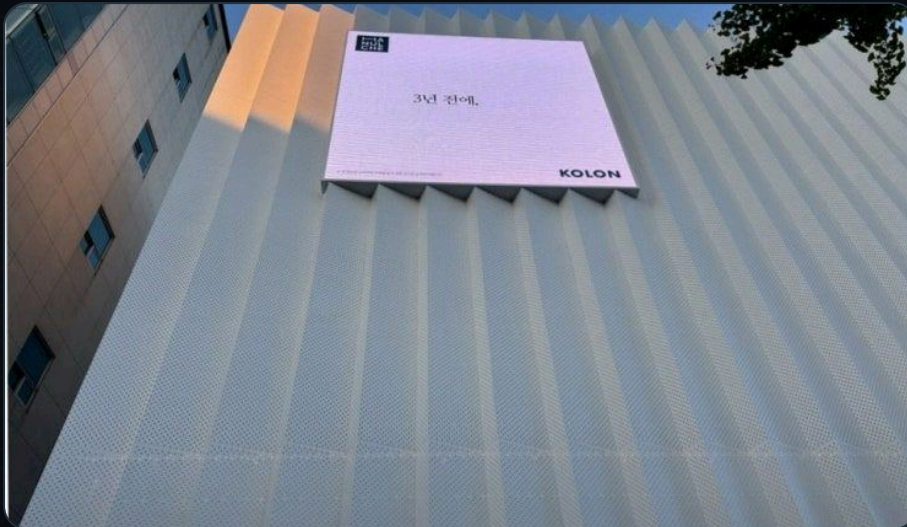
LED전광판

기술 가이드

2026-10-03 · (주)연우솔루션 작성 · 사진 9장

태풍이 지난 아침, 화면보다 먼저 볼 네 곳

간판 아래 LED전광판 하단 프레임에 하얀 물 자국이 말라 붙어 있다. 밤사이 지나간 태풍은 유리 한 장 깨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 맨 아래 한 줄이 꺼져 있다.



태풍 다음 날, 전원을 올리기 전 밖에서 찍어 둔 다섯 자리

- | | |
|---|--|
| ☒ 상단 코킹 라인
벽과 캐비닛 사이 갈라짐·물통이 있는지 | ☒ 하단 배수 구멍
막힘, 고인 물, 흘러나온 자국이 있는지 |
| ☒ 케이블 인입구
벽 관통부 주변의 물 자국 | ☒ 후면 커버 볼트
내 귀퉁이 녹음, 커버 틈 벌어짐 |
| ☒ 분전반 누전차단기
떨어져 있으면 다시 물리지 않는다 | |



원문 수록 이미지 ·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1 젖은 채로 컨 전광판은, 모듈 한 장을 캐비닛 한 칸으로 키운다
- 2 LED 모듈 교체 건적은, 장 수보다 '같은 색이 남아 있는가'가 정한다
- 3 사진 접수에서 다시 켜지는 날까지, 그리고 다음 태풍 전의 한 번

전원을 내렸다 올리면 켜질 것 같고, 하루 이틀 지나면 마를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자리가 있다.

물은 화면 앞이 아니라, 캐비닛 뒤와 위로 들어온다

실외 LED전광판의 앞면은 생각보다 비에 강하다.

본문 속 수치

3년

3년 된 전광판에 새 모듈 한 장을 끼우면 그 칸만 유난히 희고 밝게 뜬다.

24시간

교체 뒤에는 24시간 시험 구동을 거쳐 점점 기록과 함께 인계한다.

실외 모듈은 대개 전면을 IP65 등급으로 만든다. 정면으로 들이치는 비는 대부분 여기서 막힌다.

후면 커버는 IP54 안팎인 경우가 많다. 캐비닛이 건물 외벽과 맞닿는 상단 줄은 실리콘 코킹 한 줄에 기대고 있다.

적용 디스플레이

옥외 LED 전광판 · DID·사이니지 모니터

구성 요소

콘텐츠 제작 · 순번·예약 연동 · LED 컨트롤러·송신 카드 · 수신카드 · 구조물·브라켓 보강

진행 단계

설치·시공 → 시운전·인수 교육 → 운영·유지보수

관련 솔루션

Windows 10 지원 종료 · 노후 플레이어 전환

찾은 현장 출동

교육 · 대학 · 학교

N2SF 전환 · 보안 DID

이 가이드로 상담

☎ 010-2700-2648 · ✉ osskoreaing@gmail.com

원문 · 사진 전체: screenmaru.co.kr/blog/224430313315.html



연우솔루션
YEONWOO SOLUTION

기술 가이드 313315